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고창군민의 30년 염원 노을대교 조기착공의 꿈 현실이 된다

그간 꿈으로만 여겨졌던 30년 숙원사업 노을대교가 이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기행문 '심촌순례'에서 조선의 빼어난 풍광 10경 중 하나로 서해노을을 꼽았다.
바로 그곳에 다리가 놓인다.
이전엔 부창대교로 불렸던 것을 노을대교로 상징성을 갖춰 부르게 됐다.
다리는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서 시작해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로 연결된다.
고창과 부안은 오래전부터 끊긴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전라북도 유일의 해상교량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리가 놓이면 기존 한나절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노을대교는 고창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또 하나의 경관자원이 될 것이다.

CONTENTS

2021. 06. 제471호

02 포토에세이

04 인사 말씀

06 고창 사는 즐거움

기업유치 / 세브브로이청운(주), (주)다좋은
취업하기 참 좋은 일자리 도시 고창군
고창일반산업단지 순항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높을고창'
높을고창 제품소개
고인돌 공원 앞 생물자원보전시설

14 행복 도시 고창

삶 만족도 1위, 행복지표 우수

16 고창 이색지대

식초문화도시 '고창' 초담마을
화산영농조합법인 '발효보리빵'

20 함께하고 참여하는 고창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고창군로컬JOB센터
고창시니어클럽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여성친화도시 고창

28 고창이 참 좋다

고창군산림조합_김영건 조합장
고창 행복한 치유농장_원점순 대표
귀농인 백향과 농장_민관식·김희자 부부

34 의회

의장 인사말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야기

38 문화관광이 힘이다



2021년 6월호 (제471호)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팩스 063-560-2259
홈페이지 www.gochang.go.kr 발행처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발행인 고창군수 발행일 2021년 6월 디자인 주신기획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한 2/4분기 1종 1회 홍보물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 자료를 고창군청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및 전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고창군수
인사말

‘민선 7기 3년 즈음..’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재외 군민,
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과
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를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 7기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고창군민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오직 고창군민만을 위해 일해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고창군은 자랑스런
군민과 함께 울려했 성공적인 방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품격과 의연함은 코로나19 극복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딸기·표고버섯·잡곡·바지락·방울토마토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의 아이디어와 울력은 그 산물입니다.

희망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풀밭으로 변해 버렸던 고창일반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공장 가동을 시작해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 일자리평가에서 3년
연속(2020~2021 최우수, 2019 우수) 시상대에 오르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2020년 전북 사회조사’에서 고창군민의 ‘삶 만족도’는 6.9점
(10점 만점)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1등입니다. 또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군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오로지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생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수없이 중앙부처에 달려가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
사항과 주요사업의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平易近民

돌아보면 저에게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려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군민들께 ‘희망’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고창의 의료인과 방역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헌신’을 배웠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열정’을 배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저에게 배움의 기회였고,
군민 여러분은 저에게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저에게 가르쳐주신 희망, 헌신, 열정의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한반도 첫 수도 높을고창 군민의 일상을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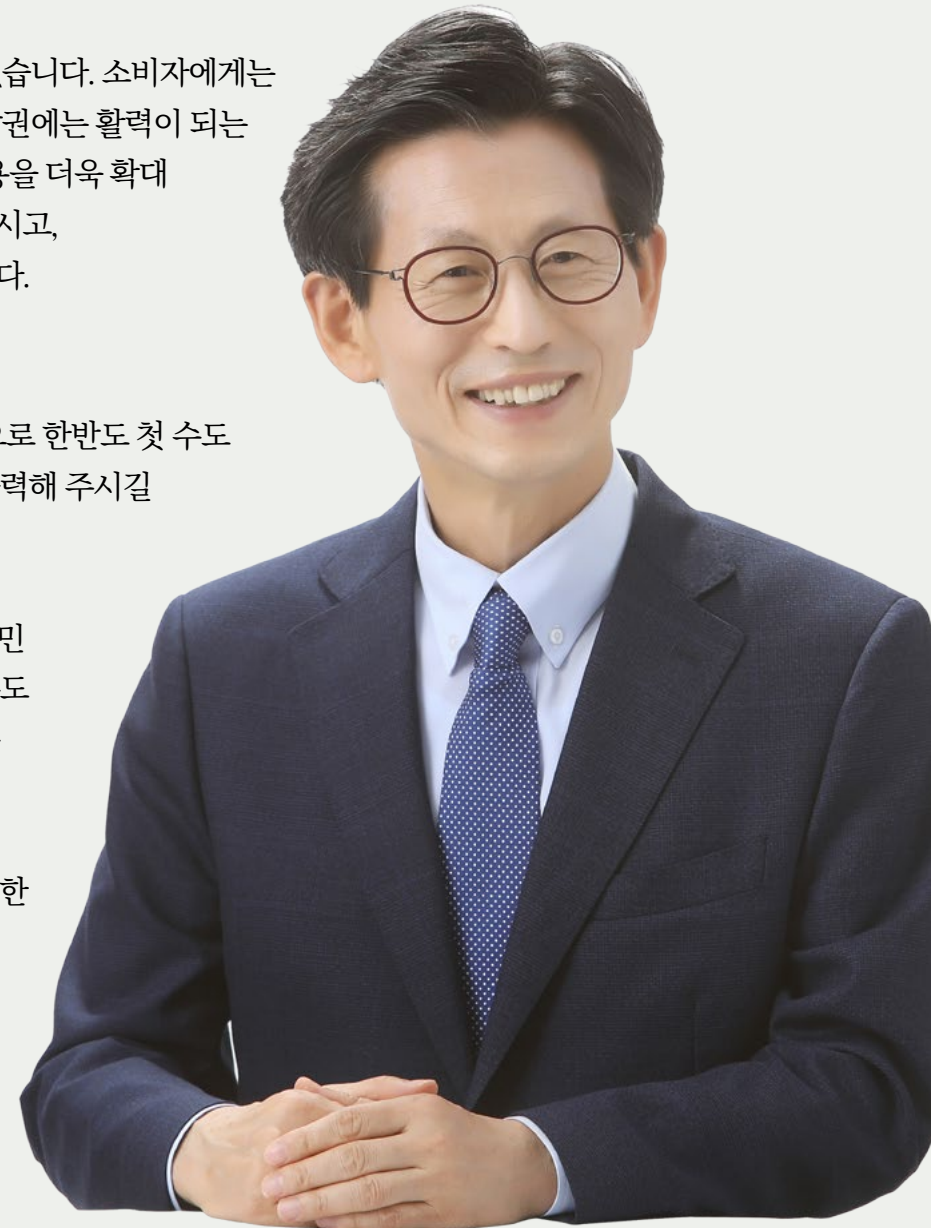
특히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할인을 통한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이 되는
고창사랑상품권과 높을고창카드 사용을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자리이다 정신으로 한반도 첫 수도
위대한 높을고창을 향해 모두 함께 울려했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유기상은 농민 군수·효자 군수·서민
군수가 되자는 초심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위해 군민과 함께 손잡고 계속
해서 큰 걸음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수 유기상



GOCHANG-GUN
고창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



북분자 농공단지 투자유치기업 4개소

- (주)태송(주)엄지식품 자회사] : 340억 원 투자, 270명 채용 예정, 곡물가공품 생산 예정
- (주)은국농업회사법인(참바다영어조합법인 자회사) : 250억 원 투자, 가정간편식 생산 예정
- (주)엄지식품 : 549억 원 투자, 160명 채용 예정, 볶음밥 등 생산 예정
- (주)다좋은(주)이앤지푸드 자회사] : 88억 원 투자, 52명 채용 예정, 컵밥 등 생산 예정

‘곰표맥주’ 세븐브로이청운(주), ‘컵밥’ (주)다좋은 고창에 터 잡는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 297억 원 식품기업 투자유치 쾌거



세븐브로이청운(주)·(주)다좋은 식품기업 투자협약

전북 고창군에 곰표맥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맥주 회사와 가정간편식 제조회사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4월 9일 흥덕농공단지, 북분자 농공단지에 새롭게 입주를 희망하는 식품기업 2개사와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세븐브로이청운(주)’는 강원도 횡성,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국내 1호 수제 맥주업체 세븐브로이맥주(주) 자회사다. 청와대 호프미팅 때 공식 만찬주로 사용되고, 최근엔 곰표밀맥주와 지역명을 딴 맥주 시리즈(강서·달서·전라서초 맥주 등)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흥덕농공단지 15,138㎡ 부지에 209억 원을 투자하고, 20명의 인력을 채용해 수제 맥주를 제조·판매할 계획이다.



‘(주)다좋은’은 북분자농공단지에 입주한 농업회사법인 (주)이앤지푸드의 자회사로 6,420㎡ 부지에 88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에서 52명을 채용해 컵밥,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슬람문화권의 할랄식품 등 가정간편식을 생산하게 된다.

세븐브로이청운(주) 김강삼 대표이사는 “고창(고창군 부안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곰표맥주나 지역명을 딴 맥주처럼 고창 맥주를 개발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함께 상생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주)다좋은 김형남 대표이사는 “고창 땅콩, 북분자, 고구마를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은 지역 농산물과 낙과를 이용한 신선한 가정간편식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라며 “컵라면처럼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가정간편식이나 할랄식품 등 고창에서 기업의 노하우를 쏟아 좋은 식품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업하기 참 좋은 일자리 도시 고창군

올해 전북도 일자리 평가 최우수.. 3년 연속 수상 대업 이뤄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북 1위, 전국 5위 명성

전북 고창군이 취업하기 좋은 일자리 도시로 뜨고 있다. 우수기업의 공격적 유치와 청년 창업 등을 지원 하면서 질과 양에서 모두 타 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고창군은 '2021년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고창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인센티브 7,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고창군은 16개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유지, 상하농원 일자리 프로젝트(짓다, 놀다, 먹다), 체류공간 제공과 창업 지원, 코로나19 대응 공공형 일자리 사업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고창군은 도 일자리 정책평가에서 3년 (2020년 최우수, 2019년 우수상)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대업을 이뤄냈다.

앞서 지난해는 '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 대상 사업 부문'에서 '고창군 로컬잡센터'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잡센터 출범 2년 만에 최대 고용실적을 뽐내며 전북지역 유일한 일자리 사업 관련 수상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 지역 소재 기업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입주 기업 체감만족도에서 고창군은 전북 1위, 전국 5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공고히 했다.



일자리정책평가 고창군 최우수(2021년)

고창일반산업단지, 대한민국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날아오른다

고창군 대표 먹거리 고품질 쌀 가공시설,
고구마 가공공장 공사 착착 진행



고창군수가 고구마, 쌀 가공공장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

그간 풀밭으로 변해 군민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고창일반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비상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고구마 가공공장과 고품질 쌀 가공시설이 착공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구마 가공공장은 총사업비 8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올해 8월까지 고구마 가공시설(2,515㎡)과 홍보실 및 사무실(808㎡)을 짓는다. 고품질 쌀 가공시설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7월까지 가공시설(2,165㎡)과 건조·저장시설(1,310㎡) 완공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각각 고구마 가공공장 40%, 고품질 쌀 가공시설 50%로 목표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전망이다.

시설이 완공된 후 본격적으로 고창군 대표 먹거리인 고구마와 쌀이 소비자에 선보일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고창군 대표 브랜드 '높을고창 쌀'은 친환경으로 재배된 수광(품종) 벼를 최고의 품질로 가공하여 10kg 당 5만 원의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 '높을고창 고구마' 역시 협의회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하반기에는 소비자에 선보일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구마 가공공장과 고품질쌀 가공시설은 고창군 먹거리산업 6차 산업화의 시작이며 농가 고소득 창출은 물론 비로소 농생명 수도 고창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 공사를 잘 마무리 지어달라"라고 당부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공식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우뚝' 높을고창, 출시 1년만 '2021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수상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애쓰는 지역 농민들의 땀과 열정을 인정해 준 것”



높을고창_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전북 고창군의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고창'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먹거리 경쟁 속 출시 1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에 지역 농가들의 판로확대·소득증대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월 2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군 농특산품 브랜드인 '높을고창'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 주최,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브랜드 신뢰도, 인지도, 품질, 충성도 등에 대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브랜드 선정위원회의 인증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높을고창'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한 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고당도, 고신뢰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브랜드 사용기준도 농촌진흥청 탐과채 기준 이상으로 설정해 엄격한 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해 상위 10% 정도의 농산물만 유통해 농가의 고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는 수박, 멜론, 친환경 쌀에 대해 높을고창 브랜드를 사용했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J the market 등을 통해 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에도 딸기, 김, 고추, 고구마로 브랜드 사용이 확대돼 소비자와 만날 예정이다.

유기산 고창군수는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지역 농민들이 받는 상이다”라며 “높을고창 상표가 부착된 농산물이라면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높을고창_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프리미엄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 제품소개



“ 수박

고창수박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의 비옥한 토양에서 높은 일조량과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문 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한 프리미엄 수박(8kg 이상, 12브릭스 이상)만이 '높을고창' 브랜드를 달고 소비자들과 만난다.



“ 멜론

세계 최초로 시도된 멜론 온라인 경매에서 2년 연속 210만 원의 경이적인 낙찰가로 하나의 문화가 된 고창 멜론. 높을고창 멜론은 모양이 둥글고 그물 모양의 껍질 간격이 일정하게 잘 발달된 제품만 엄선돼 소비자에게 극강의 과즙과 건강한 단맛을 선사한다.



“ 친환경쌀

‘한식의 시작과 끝’, ‘식은 밥도 맛있는 쌀’, ‘퇴근을 앞당기는 쌀’ 등의 후기로 전국 밥맛을 평정했다. 밥쌀용 최고 품질인 ‘수광벼’ 품종으로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대표 박종대)에서 생산한다. 단백질 함량 6% 이하의 우수한 품질기준과 전용저온창고보관, 출하 직전 1주일 이내 도정된 것만을 유통한다.

땅, 바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야기가 있는 높을고창물



고창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물' 인기몰이
<https://noblegochang.com/>



고창판 노아의 방주, 고인돌공원 앞 생물자원보전시설 들어선다

고창 고인돌공원 앞 생물자원보전시설+자연생태공원 조성 “문화·생태 아우르는 관광벨트 우뚝”

고창군 고인돌 박물관 앞 들판이 생태공원으로 바뀌고 토종종자를 보존·관리하는 시설도 들어선다.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문화재 발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본격 추진된다.

고창군 고인돌 박물관 맞은편 공터에 들어서는 생물 자원보전시설은 고창군 토종종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지구온난화 같은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지역 토종 종자들이 사라질 것에 대비해 만든 일종의 ‘노아의 방주’인 셈이다.

앞서 민선 7기 고창군은 ‘토종농산물 보호 육성 조례 (2019년 2월 1일 시행)’,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2019년 10월 15일 시행)’ 등을 제정해 토종 종자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군 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청을 통한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지표조사, 시굴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올 상반기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 착공에 나선다.

또 주변에는 거울연못 심터 등 생태공원이 만들어 진다. 높이를 낮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을 접할 수 있고, 물을 빼면 그 자체를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자연생태원 조성으로 거울연못 심터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며 휴식을 즐기고, 자연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라며 “고창군 종자보존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종자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주민이 함께하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건립

“우리가 바라는 읍사무소·돌봄 센터, 함께 만들어요”

고창군이 주민과 함께하는 만들어 가는 ‘고창읍 가족 행복지원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읍 가족행복 지원센터 설계 서포터즈는 지역주민, 장애인협회, 여성 친화도시 추진단, 시설 운영자, 건축 전문가 등이 설계 진행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

기본설계 보고회와 동시에 열린 설계 서포터즈 회의에선 ‘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저탄소 녹색건물’ 등 각계각층의 제안이 이어져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는 지난해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주민 누구나 다양한 행정·복지혜택을 한곳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읍사무소 기능에 가족과 돌봄 센터 역할 까지 통합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신축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올 연말 완공된다

지상 3층 4단, 260여 주차면수 확보 목표

고창군 중심 시가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는 지상 3층 4단으로, 260여 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총사업비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어진다. 현 군청은 물론, 향후 제2청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차환경 개선은 물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삶 만족도’ 전북에서 제일 높았다

전북 사회조사,
고창군민 삶 만족도 전북 1위..
군민 절반 이상 “소득·소비생활 긍정적”
민선 7기 농생명 식품 도시 표방하며
경제활동 활발+고창사랑상품권 등
맞춤형 정책도 효과

전북 고창군 주민들이 느끼는 삶 만족도가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가구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도 높아 민선 7기 고창군의 ‘차량스러운 고창만들기 운동’을 통한 사회통합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단 분석이다.

최근 전라북도가 발표한 ‘2020년 전북 사회조사’에서 고창군민의 ‘삶 만족도’는 6.9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 평균(6.2점)보다도 0.7점이나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 긍정 비율이 62.4%, 전반적 소비생활 만족도 긍정 비율이 56.4%였다. 이는 군민 절반 이상이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득의 경우, 전국 최고가로 거래되는 특화 작물(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쌀 등)을 비롯해 어업(바지락, 장어, 지주식김 등), 문화·서비스 제공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고창사랑상품권 발급 등 지역 경제 살리기,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추진이 경제활동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문화 가구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군민 47.7%가 긍정적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더해 다문화 가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 비율이 65%를 차지했다. 전북 전체 37.9%보다 크게 앞섰다.

[단위: 점, 10점 기준]

구분	자신의 삶	지역생활	행복(체감)
2020	6.3	6.2	6.3
전주시	6.3	6.2	6.4
군산시	6.1	5.8	6.1
익산시	6.4	6.2	6.3
정읍시	6.5	6.4	6.4
남원시	6.2	6.2	6.2
김제시	6.4	6.2	6.3
완주군	6.4	6.3	6.5
진안군	6.6	6.7	6.5
무주군	5.9	6.0	6.1
장수군	6.0	5.9	6.1
임실군	6.2	6.2	5.9
순창군	6.6	6.5	6.5
고창군	6.9	7.0	6.9
부안군	5.9	6.0	6.0

사회안전·자연환경· 노인생활 분야 행복도 높다

사회안전·자연환경·노인생활 분야
행복도 높아
행복 정책기본 계획 수립,
행복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 계획..
“군민이 행복체감하는 고창 만들 것”

전북 고창군민들이 사회안전·자연환경·노인생활 분야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군민 행복도 조사’는 지난해 8~10월 군민 2,1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의 가구 방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사회안전/신뢰’분야에서 ‘공공기관 신뢰’ (10점 만점)가 6.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군 행정이 보여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수년째 도내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청렴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먹거리 안전’ 6.8점, ‘이웃 신뢰’와 ‘사고·재해 안전’ 분야도 각각 6.7점으로 보통(5점) 수준 이상의 행복 만족도를 보여줬다.



앞서 군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선포식 등을 진행하며 군민 먹거리 안전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왔다. 특히 군민들은 자연환경(녹지, 수질, 대기)에서 느끼는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하고 자연적인 환경을 보존 유지하는 것이 행복과 웰빙 수준을 높이는 셈이다.

또 노인복지, 노인 생활여건의 만족도가 높아 고령의 경우 의료시설,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2030 청년과 여성 참여를 위한 정책, IT 기반 노인복지 설문에선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정책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인문도시 조성, 여성·아동·고령 3대친화도시 조성, 복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생명 식품 산업중심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행복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 이색지대

고창식초마을 '초담'

“몸에 좋은 발효식초 대중화 꿈꾼다”



뒤에는 선운산, 앞에는 심원 바닷가 마주한 깊은 골짜기
 뜰 앞 60여 개 초 향아리에서 복분자·아로니아 등 식초 익어가

고창에는 1호 식초마을이 있다.
 심원면 연화리 연화저수지 언저리에
 놓인 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면
 하늘을 지붕 삼고 숲을 벽지 삼아,
 번잡한 세상을 순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이 있다.

선운산을 배경 삼아 등을 기대고
 심원 갯벌을 바라보는
 깊은 분지의 골짜기.
 온화한 햇볕에 둥근 배를 천진하게 내놓은
 식초 향아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
 뽀글뽀글 발효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고창식초마을 '초담'의 조준영, 양인숙 부부는
 2019년 11월 고창군이 '식초 문화도시 고창 선포식'
 을 하며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첫 걸음을 뗀 이후 이곳에 식초마을을 마련했다.

현재 식초 전시관과 발효 실험실, 체험장, 발효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식초 향아리 60여 개가 줄지어
 들어선 뜰 앞 장독대에는 복분자와 아로니아 등
 고창의 다양한 농산물을 재료로 한 식초가 익어가고
 있다. 식초를 담은 향아리는 땅에 묻거나 발효실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자연 상태에 두고
 눈과 비와 바람을 맞게 한다. 마치 일본 가고시마
 흑초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다.



‘초담’의 조준영 대표는 50대를 넘기면서 북적대는
 도시생활에 마음이 지쳐 농촌 생활을 동경하게
 됐다. 귀농 후 사람에게 마음을 시달리는 도시와
 달리 몸을 부리는 일에 빠져 열심히 하다 보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만난 것이 식초였다. 농업기술
 센터의 식초 가공 교육에 참여하며 식초의 매력에
 빠져 식초 연구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지금은 부부가 기술센터의 식초 리더과정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식초 옹기 수천 개가 짝 깔린 곳에서 사진을 찍고
 시음도 하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느끼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자연이 내려준 기적의 물인 ‘식초’ 본연의 맛과 고창
 식초의 중요성을 알려야죠”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 그래도
 ‘마을’은 어우러져야 진짜다. 곳곳에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과 고창 식초의 매력에 반해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지역에 터를 잡으려는 이들의 보금
 자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산도 감별사, 식초 전문
 요리사, 마케팅 매니저 등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고창식초마을에 모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식초마을 초담’은 밭에 놓일 수백 개의
 향아리, 숙성된 깊은 맛, 고창 식초의 성분 분석
 자료, 고창 식초 전문 매장과 레스토랑, 다양한
 식초 요리 레시피 개발, 용량이 다른 식초 상품들,
 음료용으로 개발된 복분자 식초 등 다양한 콘텐츠
 로 특화 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준영 대표는 “고창 식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문화를 통해 융복합 6차산업 구축이
 목표다”라며 “식초가 단순히 식재료의 하나로 취급
 받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 전북 고창군 심원면 연곡길 41-97
 연락처 010-9204-2559(조준영 대표)



대표 조준영

고창 이색지대

화산영농조합법인 '발효 보리빵'

산골마을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보리빵 내음

“이 빵을 먹는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빵을 만듭니다.
고창 발효 보리빵이 다른 곳과 다르다면 그건 마음을 담기 때문일 겁니다.”

보리 이삭이 노랗게 익어가며 여름의 문턱을 알리는 '소만(小滿)'인 5월 21일. 빵익는 구수한 향기를 따라 고창군 고창읍 노동 저수지 너머 화산마을에 자리 잡은 고창 발효 보리빵을 찾았다.

보리빵은 고창산 청보리 가루와 생막걸리를 섞어 만든다. 물 좋기로 소문난 생막걸리가 들어간 반죽은 보릿가루의 물성을 확 뒤집어 놓는다. 보릿가루의 주성분 중 하나인 단백질과 막걸리 효모가 저기압과 고기압처럼 매일 새로운 날씨(빵)를 연출한다.

습도와 기온에 따라 숙성시간도 제각각. 빵 반죽은 틀에 넣어 모양을 잡아준 뒤 보통 10시간 정도 숙성시킨 다음 찜기에 찌준다.

강하지 않은 보리의 향, 고소한 호두와 견과류로 고소함이 배가 돼 남녀노소 누구든지 무난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드라운 식감도 인상적인데, 거칠고 푸석하다는 보리빵의 편견과는 달리 꼭 밀가루로 만든 것처럼 부들부들하다.



대표 이숙희



고창 발효 보리빵 꺼내는 작업

우선 글루틴 함량이 적어 소화가 잘 된다. 풍미를 더하기 위한 첨가물이 가미되지 않았고, 효모를 통해 발효했기 때문에 위와 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맛이 소박한 대신 몸에는 좋은 것이다.

고창읍 화산마을 화산영농조합법인(대표 이숙희)은 2010년 4월부터 고창산 명품 농산물(보리·흑미·흑태·호박·복분자 등)을 활용한 보리빵과 보리 쿠키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숙희 대표는 “고창의 옛 지명인 ‘모양현(牟陽縣)’의 ‘모’자는 보리를, ‘양’자는 태양을 뜻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보리가 잘 자라는 고장’인 셈이다”라며 “지역 보리 농가를 돕고, 국민 건강을 이롭게 하고, 마을에까지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0년 동안 청보리 축제장과 전통시장에서 발품을 팔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최근엔 웰빙·건강식 열풍으로 중장년층과 소화가 불편한 환자들에겐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양 식품으로, 젊은 층에선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욱이 개별로 포장해 가지고 다니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냉동 보관해뒀다가 두근두근 먹을 수도 있는 고창 발효 보리빵은 그야말로 간식계의 팔방미인이라 할 만하다.

화산영농조합법인은 청보리를 이용한 기능성 보리빵·보리선식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가공, 산나물 음식 체험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 초·중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식품, 제과제빵 만들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숙희 대표는 “트렌드에 걸맞게 ‘한입 보리빵’, ‘한입 떡국’과 같이 먹기 쉽고 휴대하기 간편한 소형화 상품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전 국민이 고창 보리빵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는 게 목표이자 소박한 꿈이다”라고 전했다.

위치 전북 고창군 화산길 67-44
연락처 010-3321-2510(이숙희 대표)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심는 재생의 나무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4월에 개소하여 고창군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기관이다.

고창군 전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기초 센터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모양성, 옛 도심)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센터로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민 리더를 양성하고,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구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지는 여타 유관기관과의 차별점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활성화 지역을 육성하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중심의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구하는 역할은 고창군의 거점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면서 그곳에서는 주민들의 역량도 함께 일깨워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학당 2기 종강식

고창군민들의 삶이 치유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도시 재생을 꿈꾸며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인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증대를 위해 다채롭게 운영 중인 주민 참여사업도 있다. 또한,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대내외로 홍보하기 위한 주민 공간(북카페) 운영 및 도시재생 소식지인 「렛츠고창」, 「네모모양」, 「꿈꾸는 옛도심」 제작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바로 '찾아가는 도시재생 대학'이다. 찾아오기를 바라는 모객 형식이 아닌 기관이 직접 마을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방식의 교육으로 전국 최초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다.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바리스타 교육



2021년에는 고창군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화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리더를 발굴하고,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주민 리더를 양성하는 지역재생 활동가 교육을 마쳤고 12명의 수료생이 각 현장에 투입되어 고창군의 도시재생에 앞장설 예정이다.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항상 한 발 빠르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말에 이사까지 결심하고 도시재생에 열정을 쏟는 직원(서윤희, 최혜미)도 있기 때문이다.

황지욱 센터장은 "다음 세대들에게 열려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추구하는 가치예요."라고 말한다. 고창군에 심어진 작은 묘목이 미래에 맺을 결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이러한 열정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5,2층
연락처 070-5001-5607



고창군 조양관 건물 전경

고창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 '조양관', 청년 상생공간으로 바뀐다

고창군의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인 '조양관(근대 건축물 등록문화재 325호)'이 '청년상생관'으로 변화한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꿈이 창업으로 이어져 고창군옛도심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군은 기존 조양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비로 리모델링한다. 이후 청년들이 요식업 창업을 도전해볼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청년모임 공간으로 꾸며낼 계획이다.

청년상생관은 오는 11월경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옛 도심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창업 교육을 수료한 후 창업공간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 청년은 고창군 옛 도심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 063-562-5605)

고창 일자리 창출의 허브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지난 2019년 고창군과 전북 새만금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고창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소한 기관이다.

관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지역민들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구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보유하고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민과 관의 중간조직으로 고창군민이 행복한 지역 중심, 사람 중심의 고용안전 Safety Belt 구축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려왔다.

그동안 고창군로컬JOB센터는 김희진 센터장을 필두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고창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왔는데 특히 전라북도 내 일자리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고창군 일자리 정보지를 만들고 배포하는 등 지역민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3호(장수, 완주, 고창 순)로 고창군로컬JOB센터 개소 이후 줄곧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일자리'를 주요 가치로 삼아 이동 상담,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고창군으로 이주 예정인 기업체와 구직자들에게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타이밍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고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동행면접을 실시했다.

‘고창군 일자리 한마당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고창 모양성제와 함께 하는 채용 박람회’ 등의 행사 진행을 통해 고창군민들에게 안정맞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창의 일자리 창출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관련 허브 역할을 위해 일자리유관기관 통합 워크숍을 진행하여 일자리 협력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밑바탕으로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지난 2년간 총 2,318명의 구직자를 발굴하여 2,579명을 알선, 총 1,465명을 취업시켰다.



또한, 그동안 관내에는 없었던 '신 맛나는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채용행사를 개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유독 힘들었던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비대면 취업박람회인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토록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쓴 결과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고창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데 톡톡히 일조하였다.

현재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운영 3년 차를 맞이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체계적인 구인처 및 구직자 관리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대면 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장기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며 고창군로컬JOB센터 2.0시대에 맞춰 내부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에 최상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희진 센터장은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고 재차 강조한다. 일자리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토대이며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받쳐 주는 안전판과 같다. 앞으로도 고창군로컬JOB센터는 대내·외적으로 일자리 정책 잘하는 고창군이 되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11, 1층
연락처 063-561-5234



고창시니어클럽

최고의 노인일자리 선도 기관

고창은 군소도시이자 농촌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2019년 11월 노인 일자리 문제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개소한 것이 고창시니어클럽이다.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2020년에는 65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개발을 통해 노인과 후손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시니어클럽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공익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먼저 '시장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이며 네 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창근 센터장은 "고창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가장 시급" 하라며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저 없이 연락을 주길 당부했다.

현장1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런웨이” 고창 시니어 모델 교육 열정 넘친다

기본 워킹과 미소 짓는 법, 무대매너 등 교육..“멋 내기 딱 좋은 나이 아닌가”

“이 나이에 걸음 연습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서둘러도 재미있고, 새로운 도전 그 자체가 즐거움이예요.” 고창문화의전당 교육실. 레드카펫이 깔리고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서 혹독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백발의 한 노신사는 “내 나이가 일흔인데, 멋 내기 딱 좋은 나이다”라고 활짝 웃음 지었다.

고창군 관내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전문 시니어 모델 교육'이 이달부터 시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년을 상징하는 주름은 생의 훈장과 같은 것이라며 더 이상 생물학적 시계에 갇히기를 거부하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소 짓는 법부터 기본 워킹, 무대매너 등 전문 모델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과 개성을 극대화해 모델 지망생의 재능과 열정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15명의 참여 어르신들은 2개월 과정 수료 후 활력 넘치는 전문 시니어 모델로 지역축제는 물론, 전국의 패션쇼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2

사진작가로 변신한 고창 어르신들,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화제'

고창시니어클럽 '꿈을 찍는 사람들' 6명, 3월부터 사진교육받고
노인시설에서 장수사진 봉사

“김치~아, 좋습니다”

지난 9일 오후 고창군 고창읍 고창교육문화회관 2층 고창시니어클럽 교육장 한쪽에 임시 사진관이 차려졌다. 어르신들은 번호표를 받아두고 순서를 기다렸다. 고운 한복과 정갈한 옷차림으로 예쁘게 단장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장수사진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라며 “너무 고맙다. 건강할 때 장수사진을 찍어 준비해놓고 싶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 역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다. 어르신 사진가는 모델의 어색한 표정과 포즈를 부드럽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분위기를 끌어올리느라 촬영장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처럼 사진작가로 변신한 고창의 어르신들이 지역의 노인시설을 찾아다니며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펼쳐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창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인 '꿈을 찍는 사람들'의 사진작가 6명은 힘머리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다. 평균 연령만 70세에 이르고 있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프로 사진가 못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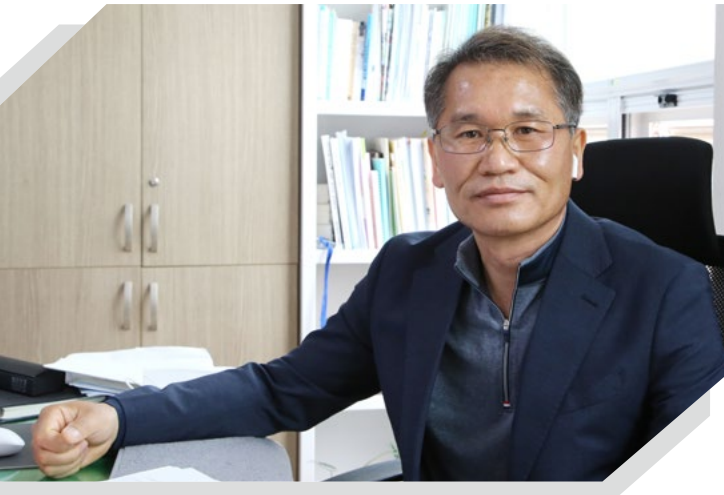
앞서 고창시니어클럽 '꿈을 찍는 사람들'은 지난 3월부터 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사진 기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이후 지역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정의 비용만으로 어르신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며 활동하고 있다.

꿈을 찍는 사람들 김석곤 회장은 “사진을 배우면서 인생이 다시 활짝 피었다”라며 “동네 형님·누님들이 과거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앞날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찍어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창시니어클럽은 앞으로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풍부한 경험,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민간을 연결하며 성장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고창군 전체 지역을 아우르며 운영 중인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는 동아리 형태로 모인 단체, 개별 공동체 활성화, 지역 개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며 조례에 의해 지속해서 마을을, 또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또한, 이전 사업에서 생겨났으나 침체되어버린 하드웨어 시설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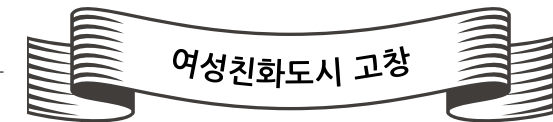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는 3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통의 관심과 문제를 나누고 협력하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며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마을공동체팀.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한 동호회 및 문화 활동 전문가 그룹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삶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별공동체팀.

이윤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팀. 각 팀은 함께여서 살맛 나는 마을. 함께해서 웃음 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와 자치 분권을 이야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는 아직은 미약한 고창군의 주민자치 분야가 자문기구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이 직접 협의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자치의 기본이 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중간지원조직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마을 사업, 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려 한다.

이영근 센터장은 "지역사회가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것을 막고, 서로 화합하여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노동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창 주민들이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해 주길 염원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창 주민들이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해 주길 염원한다.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농산물유통센터 2층
연락처 063-561-0601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우리들의 여성친화도시”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기 출범



지난 5월 21일 고창군민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군민참여단의 제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기 참여단 출범을 기념하는 위촉식이 열렸다.

행사는 지난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해낸 제1기 군민참여단(43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앞으로 2년간 활동 예정인 제2기 군민참여단(3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특히 제1기 참여단으로 활동한 김정임(61·부안면) 단원은 △농촌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버스정류장·경로당 모니터링 △지역안정을 위한 불법 카메라 단속 등의 활동사항을 발표했다.

김정임 단원은 “군민참여단 활동으로 군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물이 군민의 편리함으로 이어지는 보람된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2기 참여단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참여해 안전, 돌봄, 일자리 발굴 및 핵심사업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여성친화팀 김애숙 팀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욕구에 기반한 고창형 여성친화 사업을 찾아내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확대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군산림조합 김영건 조합장

함께 가꾼 푸른 숲, 함께 누릴 푸른 꿈을 위하여



조합장 김영건

“우리 지역의 산림이 더 푸르도록, 그래서 한반도의 첫 수도였던 고창이 풍요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타깝게도 국토가 64%인 나라에 산림 공사는 없다.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고창군 산림조합은 식목과 벌채 같은 기본적인 것을 비롯해 민과 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권익을 챙기는 것이 기본 업무다. 또한, 산불 예방과 농촌봉사 활동 등의 사회 환원도 병행하고 있다.

“고창이 전국 조경수의 메카가 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산림조합은 고창군의 조경수 증장기 발전 계획의 핵심으로서 전국 조경수의 메카라는 원대한 포부를 품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우수한 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나무시장을 운영하여 고창에서 생산된 최고의 조경수 및 유실수를 엄정한 품질관리를 통해 유통·판매하고 있다. 또한, 로컬 판매장을 통해 나무를 키울 때 필요한 자재들을 경비만 남긴다는 생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을 위해 농산물, 수산물 또한 대리 판매하고 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산림조합은 걸로 태는 안 나지만 말없이 빨래해 주고 밥을 해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이죠.”

고창군산림조합에서는 산에서 베어낸 나무를 활용해 매년 백 개씩 효도의자를 제작하여 군에 기증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르신이 많이 있는 마을 단위로 기증하다 현재는 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심의 중앙에다가 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증하고 있다. 그리고 방장산 등산 길목에 등산객들이 편히 등산할 수 있도록 대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지팡이를 비치하였다. 또한, 매년 장학금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부, 봄철 산불예방 및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같이 살기 위해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조직이 신뢰를 받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 신뢰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고창군산림조합은 신뢰를 기반으로 그 위에 정성을 하나 하나 쌓아올려 김영건 조합장의 임기 동안 큰 성장을 이룩했다. 김영건 조합장은 남은 임기 동안 산림조합을 더욱 성장시켜 어느 누가 새롭게 조합장으로 취임하게 되더라도 산림조합을, 나아가 숲과 나무의 도시 고창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82
연락처 063-563-2438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고창 소나무” 서울 예장숲 대표목 사용 ‘소나무 도시’ 고창, 가로수부터 읍성에는 수백 년된 소나무, 해안가엔 방풍림 등

‘서울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예장숲’에 고창산 소나무가 자리 잡았다. 이 소나무는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로 이름 붙여졌다. 예장숲을 기획한 서해성 총감독은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찾으려는 간절함으로 불렀던 애국가의 한 구절로 나무 이름을 명명해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3개의 후보목에 대해 서 감독이 직접 고창에 내려와 현장 확인을 거쳐 명품 소나무를 공수했다. 소나무는 그 나라, 그 지역 사람을 닮는다. 모진 바람과 척박한 환경에서 휘어지고, 상처 나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고, 강건하고 곳곳해 96인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해낸 고창군민과 더불어 수 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고창 행복한 치유농장 원점순 대표

땅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농장



대표 원점순

고창 성내면에 가면 특별한 농장이 있다. ‘행복한 치유농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농장처럼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이곳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단순히 물과 거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장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다.

“갑시다.”

6년 전, 원점순 대표가 귀농을 결심한 건 남편 때문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채식주의자, 그것도 유제품조차 먹지 않는 비건이다. 그러니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힘겨운 도시생활을 묵묵히 감내하던 남편이 어느 날 귀농 의사를 밝혔을 때 한창 상담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원점순 대표는 두말없이 남편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하고 고창으로 내려왔다.

“수박이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모르고 순을 따줘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귀농이라고는 하지만 원점순 대표는 본업이던 상담사의 일을 고창에서도 이어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고창에 내려와 심리상담센터 오픈을 준비 중에 농장과 상담 센터를 오가며 일을 하는 게 버겁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농장 일만으로도 버거웠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수박 하우스에서 남몰래 펄펄 울기도 했다.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담사와 농업인 사이의 정체성 혼란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그러던 와중 아예 상담실을 농장으로 갖고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치유+농사’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행복한 치유농장’은 세 동의 하우스와 노지 그리고 치유문화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회적 농업 활동과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이 이뤄진다. 그녀가 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에는 발달장애인과 연로한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놀랍게도 행복한 치유농장에서 이들은 사제시간이다. 본래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돌봄 대상인 어르신들이 발달장애인과 농작업을 함께하며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강사비까지 주어지니 어르신들은 농사꾼에서 선생님이 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행복해한다. 그 밖에도 원예, 동물, 미술을 매개로 통합예술 치료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희 농장은 쉬어가는 곳이에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치유농장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일반 체험농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원점순 대표는 단기성, 일회성 프로그램의 한계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행복한 치유농장’의 프로그램들은 최소 6개월이란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된다. 때문에 체류형 전문 상담치유농장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적이다.

“도시에서 복잡복잡하게 사느라 심이 필요한 분들이 놀러 오는 느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 타지에 계시는 출향인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원점순 대표는 고창에 온 지 5년 차 되던 해 귀농·귀촌 모임을 끊었다. 더 귀농·귀촌인이 아닌 이제는 고창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치유 농업과 사회적 농업의 비전에 대해 확신하는 그녀는 향후 서울이나 대도시 사람들이 치유농장을 찾았다면 고창으로 떠올릴 수 있게 최고의 치유농장을 만들고 싶다는 정말 야무진 꿈을 갖고 매일 새로운 아침의 태양을 맞는다.

위치 전북 고창군 성내면 외옥길 45-11

연락처 010-6461-1222

동물교감교육



유기상군수님과 함께 심사 참여



김장나눔행사





민관식·김희자 부부 '백향과'

“새콤달콤 100가지 맛, 아열대 과일 백향과 맛보세요”

서울 토박이 민관식(43)·김희자(39) 부부는 직장 생활이 바빠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두 딸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도시 생활이 힘들어 지난 2015년 고창군 대산면으로 귀농했다. 고창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인터넷으로 귀농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귀농 귀촌 1번지로 고창군이 나오는 것을 보고 관심이 끌렸다. 민씨는 “고창에는 수박, 체리, 멜론, 땅콩 등 다양한 특화 작목을 재배하는 이들이 많아 ‘초보 농부도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창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 가는 희열”

지난 6월 3일 오후 고창군 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는 하우스에서는 남미 지역이 주 원산지인 열대과일 ‘백향과(패션프루트)’가 짙은 보라색으로 익어가고 있다. 전라북도 고창산 열대과일이다.

백향과는 브라질 남부지역이 원산지로 열대기후에 적합한 작물이다. 민 씨가 과감하게 열대과일 농사에 도전한 것은 수확이 빠른 특성과 시장 접근성 때문이었다.

그는 “열매가 열리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다른 과수와 달리 패션프루트는 첫해 곧바로 수확할 수 있다”라며 “열대 과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인근 광주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시장을 찾기도 더 좋다”고 설명했다.



백향과는 국내 수요가 확실했지만, 공급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생산량이 정상 소출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민 씨는 지렁이가 살아야 건강한 땅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토양 관리부터 시작했다. 지렁이가 살도록 해주는 영양 가득한 흙 총 15t을 밭에 뿌렸다. 백향과는 익으면 스스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에 따른 노동력이 거의 들지 않는다. 수확 시기에 바닥에 떨어진 과실만 주워 담아 포장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쉽게 재배할 수 있다.

초기에는 백향과를 위탁 판매해 수입이 적었으나, 지금은 소비자들과 직거래하고, 2019년부터 무농약 백향과로 인증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농장의 깨끗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여서 매출액이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 매출 1억 원을 넘기고 있다.

민 씨는 농사에 있어 가장 좋은 거름은 농부의 발걸음이라며, 집 앞마당에 하우스 5동을 짓고 아내와 함께 매일 백향과를 관리하면서 ‘고창 백향과 향기 가득 농장’을 즐겁게 운영하고 있다.

민 씨는 “어느새 귀농 6년 차가 되고, 이제는 두 딸이 서울보다 고창을 더 좋아한다. 고창으로 귀농하길 참 잘했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홈페이지 <https://백향과.com/>
구입문의 010-8608-9128(김희자)

의장 인사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장 최인규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범한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고창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특히,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군정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과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해왔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군민 권익 보호와 복지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항상 군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초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고 조례의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듯이 우리의 하나 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인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초선 의원**의 높은 열의와 **다선 의원**의 노련한 경험이 조화를 이루면서, **군민의 결으로 한걸음 더 다가**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군민에게 힘이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활동한 의정 내용을 보면 정례회 1회, 임시회 7회 등, 총 8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 처리 내역으로는 조례안 35건, 예산 및 결산 3건, 건의·결의안 6건, 동의안 21건, 기타 안건 26건 등 총 91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군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규 등을 정비하였고, 군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많은 개선책을 도출해 내며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례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의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고창군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한빛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고향세법) 제정 촉구 결의안」, 「노을(부창) 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등을 채택하여 지역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역 현안이나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 군민이 필요로 할 때 발 벗고 나서는 현장 참여 의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을 위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야기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기자간담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부안군 참프레 공장 견학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한빛원전 위험 재발 방지 촉구 결의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고창 선운사 만세루

지붕없는 박물관 고창, 보물도시로 우뚝!!

2019년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2020년 고창 선운사 만세루
2021년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전북 고창군이 2019년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을 시작으로, 2020년 선운사 만세루, 2021년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까지 3년 연속 지역 문화재가 국가보물로 승격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로써 2021년 6월 현재 고창군 보유 국가지정 보물은 11개로 늘게 됐다.

민선 7기 고창군은 지역에서 잠자는 문화재들의 참된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하고, 용역도 진행했다. 유기상 군수도 문화재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고창에 초청해 지역의 찬란한 역사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보물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이는 고창 봉덕리고분을 중심으로 한 '마한 역사 문화유적'과 '상금리 고인돌군'의 세계유산 등재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 황윤석 선생의 종손인 국방대학교 황병무 명예교수가 '이재난고'를 기탁·기증했는데, 고창군은 이를 보물로 승격시키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군민이 군수인 높을 고창”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

노을 속 잔잔한 쉼, 자연스런 웃음의 휴양지

상하 고리포 어촌뉴딜300 사업 최종 선정.. 국비 등 100억 원 확보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되는 옛 도심

고창 옛 도심지역(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국비 등 122억 원 확보

함께 만드는 청정먹거리, 모두가 누리는 감동먹거리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등 113억 원 확보

안전 고창! 국비확보로 완벽한 재해재난 예방사업 추진

장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94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47억 원)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국비 등 18억 원 확보)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예비 문화도시 확정

2021년 국가예산 확보 1,466억 원

지방자치 출범 이후 역대 최다액!! 고창군 전체 예산 7,000억 시대 개막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